

## 디카시로 담은 밝고 희망찬 농업과 농촌의 꿈

농촌진흥청 주최 '제1회 농업 · 농촌의 꿈' 디카시공모전이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디카시인협회와 한국디카시연구소가 후원하여 더욱 화제가 되었다. 밝고 희망찬 농업과 농촌의 꿈이 표현된 내용의 공모 주제로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오픈 방식이었다. "디카시는 시가 아니다. 디카시는 디카시다"라는 명제에서 알 수 있듯 디카시는 시이면서도 기존의 시라는 카테고리에 갇히지 않는 자유로운 양식이다. 디카시는 한국에서 발원하여 디지털 시대의 최적화된 양식이며 세계적 보편성을 지닌 생활예술이면서도, 유수의 시인들이 창작하는 본격예술로서 한국을 넘어 K-리터처스로 해외에 소개될 만큼 글로벌 장르로 부상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주최 디카시공모전에 321편이 응모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제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되는 놀라운 K-컬처 중심 글로벌 시대가 활짝 열렸다.

이번 응모작들은 하나같이 밝고 희망찬 농업과 농촌의 꿈이 디카시로 표현되었다. 대상작 <벗짚 내일을 품다>은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수확하고 난 들판에 하얀색 비닐로 씌워진 '곤포사일리지'를 초점화해서 "가진 것 아낌없이 내어 주더니/떠나기 전 거대한 알까지 낳아/부활 꿈꾸고 있는 들녘"이라고 연술한다. 이 작품은 극순간 멀티 언어 예술로서의 디카시의 정체성을 탁월하게 표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농업과 농촌의 꿈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현대화된 영농기술을 표상하는 '곤포사일리지'를 거대한 알로 메타포하고 그것을 미래의 꿈과 비전으로 환기시켰다. 최우수작 <아버지의 길>은 농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땀과 정성이 필요하는 것인지를 손에 잡힐 듯 표현하고, 최우수작 <예행 연습>은 한국 농업의 미래를 이어갈 세대의 천진성을 드러내 <아버지의 길>과 상호 텍스트성으로 수렴됐다.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들이 현실의 고단함과 역경 속에서도 모두 밝고 희망찬 시선으로 한국 농업과 농촌의 꿈을 디카시로 담아내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농업과 농촌의 꿈이 미래의 현실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 ○ 심사

- 위원장: 김종희(평론가, 한국디카시인협회 회장)
- 위원
  - 이상옥(시인, 한국디카시연구소 대표)
  - 최광임(시인, 계간 <<디카시>> 주간)
  - 이기영(시인, 한국디카시인협회 사무국장)

## ○ 심사위원 약력

### 김종희(심사위원장, 평론가) : 한국디카시인협회 회장

1988년 《문학사상》 평론부문 등단. 경희대학교수,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 박경리토지학회 회장 역임. 김환태평론문학상, 김달진문학상, 편운문학상, 한국문학평론가협회상 등 다수 수상.  
평론집 : 『문화 통합의 시대와 문학』, 『문학과 예술혼』, 『영혼의 숨겨진 보화』 등 다수  
(현) 황순원기념사업회 회장, 이병주기념사업회 회장, 중국 연변대 객원교수

### 이상옥(시인) : 한국디카시연구소 대표

1989년 《시문학》 등단. 창신대 문예창작과 교수 역임.  
시문학상, 유심작품상, 경남문학상, 편운문학상, 산해원문화상 수상  
평론집 및 이론서 : 『불통의 시를 넘어』, 『시창작강의』 등 다수  
시집 : 『유리그릇』, 『그리운 외뿔』, 『하늘 저울』 등 다수  
디카시집 : 『장산술』, 『고흐의 해바라기』  
(현) 베트남 메콩대 교수.

### 최광임(시인) : 두원공대 겸임교수

2002년 《시문학》 등단. 대전문학상 수상  
시집 : 『내 몸에 바다를 들고』, 『도요새 요리』  
디카시해설집 : 『세상에 하나뿐인 디카시』  
(현) 계간 《디카시》 주간, 계간 《시와경계》 발행인

### 이기영(시인) : 한국디카시인협회와 한국디카시연구소 공동 사무국장

2013년 《열린시학》 등단. 전국계간지우수작품상, 김달진창원문학상, 이병주경남문인상 수상  
시집 :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나는 어제처럼 말하고 너는 내일처럼 묻지』  
디카시집 : 『인생』  
(현) 경남신문, 백세시대신문, 미디어시인신문 필진

## < 수상작 취소에 관한 규정 안내 >

수상작은 향후 표절이나 타인의 작품, 타 공모전 수상작, 저작권에 위배되거나 초상권 문제가 발생하는 작품, 공모전 규정 위배 등의 사유로 판명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시상금은 반환됩니다.

## < 저작권 안내 >

응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농촌진흥청에 있으며 수상작에 대하여 향후 5년 동안 저작재산권을 가집니다. 수상작은 농촌진흥청에서 출간하는 도서와 각종 언론홍보 및 전시회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작자와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습니다.